



30년 결호 없이 이어온 시의 기록... '시와사람' 통권 120호

광주·전남 유일의 시 전문지 '시와사람'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통권 120호를 발간했다. 1996년 여름호로 첫선을 보인 '시와사람'은 결호 없이 30년 동안 발간을 이어오며 광주·전남은 물론 한국 시문학의 흐름을 기록해 왔다.

창간 30주년 맞아
디카시, 남도·젊은 시인 조명
신인상에 신옥비 시인
한국 시문학 흐름·미래 담아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강경호 발행인은 "30주년 회고"를 통해 "'시와사람'은 광주민중항쟁 16주년을 기점으로 5·18 정신을 잇고 인간과 인간관계의 정경다리가 되고자 했다"며 "시인의 책무인 서정은 우람하게 자란 나무처럼 무성한 그늘을 드리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 동시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다양하게 분출되는 서정의 세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은 문예지의 운명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창간 30주년 특집으로는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디카시 읽기'를 마련했다. 이번 특집은 디지털 문명 시대 새로운 서정 형식으로 자리 잡은 디카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좋은 디카시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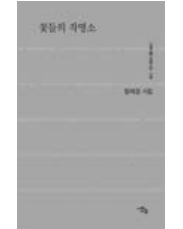
'시인카페'에서는 다양한 문학 장르를 넘나드는 강대선 시인의 디카시조를 통해 '사진과 시조'라는 형식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일문일답을 통해 시인의 작품 세계도 함께 들여다봤다. '남도시인탐구'에서는 이승하 중앙대 교수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시인 송수권의 장시집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역사적 배경과 함께 분석하며 작품 세계를 살폈다. '신작초대석'에는 사운수 시인이 참여했다. 삶의 본질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세상에 대한 관대함을 담아내는 그의 시 세계와 신작을 살펴본다. '해시태그'에서는 송기영 시인이 여성민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사랑과 이별, 죽음과 낙원 등 여성민 시에 나타난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김동원 평론가의 연재 '들쭉과 감춤의 시학'에서는 미래파 시인 여정의 작품에 나타난 시적 상징과 메타포, 해체적 시형식을 분석했다. '이 시집을 주목한다'에서는 박관서의 '너

를 보내는 동안', 이숙현의 '푸레독 여자', 김문홍의 '가족이라는 기후', 엄민숙의 '밤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조선희의 '이제 너를 놓쳐도 되겠습니까', 정애경의 '꽃들의 작명소'를 다루며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짚었다. 이번 호 '시와사람 신인상'에는 신옥비 시인이 선정됐다. 신옥비 시인은 사물을 통해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신체 감각을 정서와 서사로 확장하는 역량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와사람'은 전국계간문예지편집자 회의와 전국문예지편집자대회, 시와사람시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문학계의 교류와 담론 형성에 힘써 왔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진흥위원회 우수문예지, 한국잡지협회 우수콘텐츠잡지 등에 선정되며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와사람'은 앞으로도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을 통해 지난 30년간 변화해 온 우리 시의 모습을 되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동plus 여름호(통권 59호)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목판본으로만 전해지던 성산계류탁월도 원화를 발굴해 공개했다. 담양 석영정과 환벽당 일대 계곡에서 서하당 김성원 등이 사회를 열었던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좌우에 명단과 시 2편이 담겨 있다. '전남의 마을' 1박2일 시리즈에서는 낙원 오씨 집성촌인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와 무안군 몽탄면 돛도리 일대 문화유적과 역사 인물, 근현대 인물을 조사했다. 인터뷰 코너에서는 작두 타는 목공예가 조규춘 교수,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 최지선 춤추는 무용연구가를 만났다. /광주문화발전소



▲꽃들의 작명소=정애경 저자
시인은 생명을 꽃피는 순간만이 아니라 베이고 마르고 부셔지고 견디는 과정에서도 포착하고 있다. 이는 상처 입은 생명, 상실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명, 돌봄의 피로를 견디는 생명, 역사적 불안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감각을 놓지 않으려는 생명의 응축으로 보인다. 시인의 서정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 꽃, 봄, 나무, 바람, 나무, 햇살 같은 자연의 어휘들은 삶을 부드럽게 덮어주거나 시련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속성으로 다뤄지지 않고, 삶의 상처와 비탄을 읽어내게 하는 감각의 문자 체계로써 다뤄진다. /시와사람사·1만2천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김상욱 저자
가장 먼저 변하지 않는 양이 무엇인지 찾는 물리학자나 화학자처럼, 우리도 일상과 인간관계, 사회에서 10년 뒤에도 변치 않을 사실을 찾을 수 있을까? 물리학자 김상욱이 바라본 인간과 사회, 우주에 관한 변하지 않을 8가지 진실이 책으로 발간됐다. '자연법칙과 인간 본성', '우리의 끝없는 욕망 혹은 편향',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역사', 그 가운데 '끊임없이 가차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이라는 네 가지 주제 아래 알아두면 쓸데 있는 변치 않을 진실을 전한다. /동아시아·1만8천원



▲할아버지의 한 달=도현승 글, 고정순 그림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조종수 마당에 꽃을 심고 손주들과 함께 물을 주며 여는 때와 다름없는 따뜻한 일상을 나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떠난 자리에는 푸른 꽃밭이 남았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 가득 다시 꽃이 피어날 때, 가족들은 슬픔에 잠기는 대신 그 꽃을 통해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미소 짓는다. 할아버지가 남긴 한 달의 시간은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곰세마리·1만7천원

AI 문해력 시대, 과학관의 길을 제시하다

국립광주과학관 'AI와 과학관' 출간
국립광주과학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공공 과학관의 역할과 전시 방향을 담은 전문서적 'AI와 과학관' (커뮤니케이션선북스)을 출간했다. 이번 서적은 국내 과학관 가운데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저서로 주목받고 있다. 책에는 AI 문해력 교육의 필요성을 비롯해 국내외 AI 전시관 분석, CES 등 최신 전시 동향, 과학관 전시 개발 과정에서 AI를 적용하



며 얻은 경험과 사례가 담겼다. 저자들은 AI를 첨단 기술로 보여주는 데 그치는 전시를 경계하며, 관람객이 AI의 입력 과정과 작동 원리, 한계와 편향, 책임 문제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 과학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관람객이 인공지능을 살펴보고 질문

하며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방향도 제시한다. 집필에는 손성근 전시연구본부장과 김민환·김상우 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기획자의 시각과 실무자의 현장 경험을 함께 담아 전국 과학관 관계자와 교육자, 정책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9장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학관 로고송 제작과 광복 80주년 기념 팝업 전시 기획, 자체 전시품 개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이

를 통해 AI가 과학관 실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생성형 AI의 도움 없이 저자들이 집필한 저작물임을 인증하는 'HAP(Human Authored Publication·인간 저술 출판물)' 보증 마크도 획득했다.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과학관의 공공성과 역할을 담아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손성근 전시연구본부장은 "AI는 이미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어떤 데이터로 작동하고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학관이 공공의 AI 문해력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책이 현장의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